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눅 08:22-25)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고 큰 파도가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아주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꾸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 서로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정신과 감정과 의지의 구체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으로서의 믿음은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휘하여 구체적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중하시는 말씀은 '왜 믿음을 지금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꾸중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제자들 처럼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함께 죽겠다고 아우성이라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곰곰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적용하고 있는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발휘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갈 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적용시키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보잘 것 없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 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평화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